

지체의 말씀

불기 2562년 7월 / 통권 44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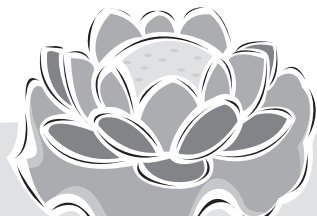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證道歌(증도가)

유 강 해 섭 산 천 심 사 방 도 위 참 선
遊江海涉山川하야 尋師訪道爲參禪이라
강과 바다에 노닐고 산과 개울을 건너서
스승을 찾고 불도를 물음은 참선을 위함이다.

자 종 인 득 조 계 로 요 지 생 사 불 상 관
自從認得曹溪路로 了知生死不相關이로다
조계의 가르침을 알고 나서부터는
삶과 죽음에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불교와 음악(2) / 운성스님

불교상식 · 7

천수경 강의(千手經 講義)

부처님의 말씀 · 10

알림마당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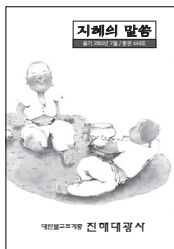
대광사 7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7·8월 유치원 행사

어린이법회 7·8월 활동

백중(영가 합동천도재)기도 안내



표지그림 / 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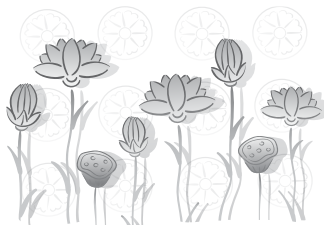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Tel. 055) 602-6267





불교와 음악 (2)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불교 음악의 시작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 당시로 부터였다고 봐야 한다. 많은 왕들과 귀족들과 대중의 존경을 받으신 부처님이 셤기에 당연 설법회가 열릴 때 그들의 환영 예식이 있었을 것이다.

석가님을 절대 존경한 빔비사라왕은 그의 왕국인 마가다국 영축산 아래에 죽림정사를 지어 제자들과 머물러 줍시사 간청한다. 석가께서는 그의 소망을 받아들여 천 이백 대중과 죽림정사에 오래 머무시며 법을 펴셨다.

마가다국 중앙에 있는 독수리 모양의 영축산 자락에 죽림정사가 지어졌다. 영축산 중턱의 설법지에서 유명한 경전 법화경이 설해졌는데 법화경이 설해질 때 많은 하늘의 신들과 우주의 수많은 불보살이 운집하여 경 설하심을 하례했다.

이 때 하늘 신들이 꽃비 내리고 하늘 음악을 연주하여 설법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장면이 경전 서두에 서술되어 있다. 아마도 각 나라 왕과 장자와 많은 대중들이 저마다의 정성으로 꽃을 뿌리고 음악을 연주하여 법회를 경축한 것을 돋우어 표현 한 것이 아닌가 생

각 된다.

백제나 신라나 고려나 조선을 막론하고 법회를 열면서 영산회상의 장엄함을 되살리고 싶은 심정은 같았을 것이다. 특히 문화의 발달이 삼국 중 으뜸이었던 백제의 예악은 우리 음악 역사를 여는 시발점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민족은 음악성이 뛰어나서 고대의 중국 문헌에 “동이족은 음악을 좋아하고 놀이를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선인들께서 만드신 독특하고 아름다운 소리의 악기들이 당나라에서 매우 사랑 받았음도 여러 기록에서 증명하고 있다.

불교를 꺾박하며 휘발 하던 조선시대에도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이 영산회상곡을 사랑하여 부처님 찬양하는 가사 말은 빼고 음악만으로 연주하여 즐겼다고 한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받들어지는 세종께서는 어머니와 아내 영혼의 왕생 발원을 위해 석가님의 생애를 칭송하는 시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을 만들었으며 “영산회상”을 더 아름답게 더 장엄하게 가꾸고 다듬으셨다고 한다.

석가님의 영산회상에서 시작된 불교음악은 세상 곳곳에서 각각의 시대를 거치며 오늘 우리에게 까지 전해져 법석의 권위를 높이고 법석의 공감대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 불교음악은 전날에 비해 현저히 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전국의 그럴싸한 절마다 합창단이 만들어져 있고 산사 음악회가 열리고 있고 여러 활발한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불가의 고요하고 맑은 음률을 많은 사회 대중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스님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고 불자들에게도 공히 책임이 있다.

서양 음악을 바탕으로 한 현대 음악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그에 걸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 할 것 없이 불



교인 모두가 분발해야 할 일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찬불가는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시대에 따라 포교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선구적 의식이 강했던 조하유를 비롯해 백용성, 권상로, 김대운, 김정묵 등 스님들과 불자들에 의해서다.

육십년 전 어린 내게 어른 스님들이 외워 부르게 하였던 노래 한 구절이 문득 생각난다. 지극히 창가적이고 동요스러운 노래이긴 하지만 말이다.

『세계조판 역전집에 제일 성인누구신이 삼천년전 인도국에 정반 왕국 높았어라.

보리수에 봄이드니 우담발화 꽃피웠네 시방삼세 제일이요 천상천하 독존이라

고해중에 빠진중생 건지고자 출현하사 갑인사월 초파일에 우리세존 탄강일세....』

당나라 때부터 불교음악이 찬송가란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대당남해기귀내법전(大唐南海寄歸內法傳)에 실려 있는 걸 보면 찬송가라는 단어가 기독교 고유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불교 음악의 오랜 역사를 기록으로 증명하고 있다.

1970년~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많은 사찰 합창단이 생겨나고 전국의 합창대회도 열리기 시작하며 불교음악이 활발하게 발전했다. 불교를 사랑하는 음악 전공자들도 속속 생겨나서 많은 곡들이 써지기도 하고 악곡집도 속속 발간 되었다.

대광사 합창단도 이무렵 창단 되어 삼십년을 넘는 활동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의 어느 합창단 보다 좋은 노래를 불러 불교음악을 선도하고 있으니 불교음악 발전에 기여한 바 상당하다 할 수 있다.



불교 상식

천수경 강의(千手經 講義)

8. 십대발원과 사홍서원

원아영리삼악도(願我永離三惡道)

원아속단탐진치(願我速斷貪瞋癡)

원아상문불법승(願我常聞佛法僧)

원아근수계정혜(願我勤修戒定慧)

원아항수제불학(願我恒隨諸佛學)

원아불퇴보리심(願我不退菩提心)

원아결정생안양(願我決定生安養)

원아속견아미타(願我速見阿彌陀)

원아분신변진찰(願我分身遍塵刹)

원아광도제중생(願我廣度諸眾生)

나는 삼악도에서 영원히 떠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삼독심을 속히 끊기를 원합니다.

나는 삼보에 의지해서 정법을 항상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지런히 계정혜를 닦기를 원합니다.

나는 항상 모든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리심에서 퇴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결정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속히 아미타불을 뵈기를 원합니다.
 나는 몸을 나누어 온갖 세계에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십대 발원은 『낙방문류(樂邦文類)』 권2(『대정장』 제47책, p.179중)에 「왕생정토십원문」의 제목으로 수록되었습니다. 다만 내용상으로 볼 때 대승불교의 전체에 해당하는 발원으로 파악됩니다. 삼악도, 탐진치, 불법승, 계정혜 등의 순서에 따른 발원은 통불교적인 발원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정토신앙과 화엄 법화신앙에 의한 발원으로 이해됩니다. 안양세계와 아미타불에 대한 말씀은 정토발원이며, 분신(分身)과 광도중생, 그리고 보리심 등의 발원은 다 화엄, 법화신앙에 의한 발원입니다.

여기서 여래는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대승불교의 모든 부처님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대 발원이 끝나면 다시 사홍서원이 나옵니다.

중생무변서원도(眾生無邊誓願度)
 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
 법문무량서원학(法門無量誓願學)
 불도무상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
 자성중생서원도(自性眾生誓願度)
 자성번뇌서원단(自性煩惱誓願斷)
 자성법문서원학(自性法門誓願學)
 자성불도서원성(自性佛道誓願成)



중생을 다 건지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내 자성의 중생을 다 건지리다.
 내 자성의 번뇌를 다 끊으리다.
 내 자성의 법문을 다 배우리다.
 내 자성의 불도를 다 이루리다.

대승불교는 보리심에 의한 보살도 실천이 그 생명입니다. 이것을 발심수행이라 합니다. 그런데 보살도 실천은 발원에 의하여 전개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승경전은 모두 발원으로 가득합니다.

『대아미타경』의 48원, 『약사경』의 12원, 『승만경』의 10대 원,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10대 원 등이 그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발원을 모두 종합적으로 집약한 것이 사홍서원(四弘誓願)입니다. 홍원은 총원(總願)이란 말입니다. 대승불교의 총체적인 원이 바로 사홍서원이 됩니다.

철저한 발원으로 인생의 목표를 굳게 세워야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그 발원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숫타니파타)

제1품 뱀의 품

10. 알라바까의 경 [Ālavaka-sutta]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는 알라비국의 알라바까라는 야차의 처소에 계셨다.

이 때 야차 알라바까는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나가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세존께서는 나가셨다.

또 야차는 말했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세존께서는 들어오셨다.

두 번째에도 야차 알라바까는 말했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나가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다시 세존께서는 나가셨다.

다시 야차는 말했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다시 세존께서는 들어오셨다.

세 번째에도 야차 알라바까는 말했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나가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또 다시 세존께서는 나가셨다.

또 다시 야차는 말했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들어오시오”

[세존] “벗이여, 좋습니다.”

또 다시 세존께서는 들어오셨다.

네 번째에도 야차 알라바까는 말했다.

[알라바까] “수행자여, 나가시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존] “나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겠소. 그대 할 일이나 하시오.”

[알라바까] “수행자여,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내게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산란케 하고 당신의 심장을 찢은 뒤에 두 다리를 잡아 갠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존] “벗이여, 신들의 세계에서, 악마들이 세계에서, 하느님들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후예 가운데,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서, 내 마음을 산란케 하고 내 심장을 찢고 두 다리를 잡아 갠지스강 건너로 내던질 만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친구여, 그대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냐 물어



보시오.”

아차 알라바까는 세존께 다음의 시로써 말을 걸었다.

[알라바까] “이 세상에서 사람의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 추구하면 안락을 가져옵니까? 참으로 맛 중에서 가장 맛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입니까?”

[세존] “이 세상에서 믿음이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이고, 가르침
을 잘 추구하면 안락을 가져옵니다. 진실이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로
게 사는 것이 최상의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라바까] “사람은 어떻게 거센 물결을 건넌니까? 어떻게 커다란
바다를 건넌니까? 어떻게 괴로움을 뛰어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청정해질 수 있습니까?”

[세존] “사람은 믿음으로써 거센 물결을 건너고, 방일하지 않음으
로 커다란 바다를 건넌다. 정진으로 괴로움을 뛰어넘고, 지혜로
완전히 청정해집니다.”

[알라바까]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명성을 떨칩니까? 어떻게 해서 친
교를 맺습니까? 또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서 슬픔을
여의겠습니까?”

[세존] “열반에 도달하기 위하여 거룩한 이의 가르침을 믿고 방일
하지 않고 현명한 자라면, 배우려는 열망을 통해⁰¹⁾ 지혜를 얻습니
다.”

알맞는 일을 하고 멍에를 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재물을 얻습



니다. 그는 진실함으로써 명성을 떨치고, 보시함으로써 진교를 맺습니다.

가정생활을 하는 신도일지라도, 진실, 진리, 결단, 보시의 이 네 가지 원리를 갖추면, 내세에 가셔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 자제, 보시, 인내보다 이 세상에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널리 수행자나 바라문에게 물어 보시오.

[알라바까] “어찌 다른 수행자들이나 바라문들에게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커다란 과보가 있는 것을 부여받았음을 저는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깨달은 님께서 알라바에서 지내려고 오신 것은 참으로 저에게 유익했습니다. 커다란 과보가 있는 가르침을 받았음을 저는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올바로 깨달은 님과 잘 설해진 뛰어난 가르침에 예경하면서, 저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 다음호에 계속 -

1). MN. II. 173 “믿음이 확립되고, 믿음이 확립되면 존중하게 되고, 존중하면, 섬기기게 되고, 섬기면 듣게 되고, 듣게 되면 가르침을 배우게 되고, 배우게 되면, 가르침에 대한 마음챙김이 생겨나고, 마음챙김이 생겨나면 가르침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게 되고, 의미를 고찰하게 되면 가르침에 대한 성찰을 수용하게 되고, 가르침에 대한 성찰을 수용하게 되면 의욕이 생겨나게 되고, 의욕이 생겨나면 노력하게 되고, 노력하면 깊이 관찰하게 되고, 깊이 관찰하면 정근하게 되고, 정근하면 몸으로 최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며, 마침내 지혜로써 꿰뚫어 보게 됩니다.”



대광사 7월 법회 및 행사



- ◆ 7월 7일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오후1시 대웅전)
- ◆ 7월 8일 백중기도 입재 (오전10시 설법전)
- ◆ 7월 13일 음력6월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10시30분 설법전)
- ◆ 7월 14일 백중 초재 (오전10시 설법전)
- ◆ 7월15일 초하루기도 회향
- ◆ 7월 21일 백중2재 (오전 10시 설법전)
- ◆ 7월 24일 선원대중공양 (불국사)
- ◆ 7월 27일 음력6월 보름법회 (오전 10시30분 설법전)
- ◆ 7월 28일 백중3재 (오전10시 설법전)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고맙습니다

♥ 군법당 지원금(5.24~6.20)

하형규 10,000 강란 10,000 대광사 후원회 50,000 유미란 50,000
 홍예현 10,000 안옥래 10,000 법연화 10,000 오미라 10,000 정광심 200,000
 김성욱 30,000 금강지 10,000 이봉숙 10,000 서경스님100,000

♥ 산사음악회 후원

천자암 500,000 자비사 500,000 후원회 2,000,000 박수관 2,000,000
 신도회 500,000 불대총동문 500,000 반야찬불단 300,000 시라회 200,000
 무기명 3,000,000 김재호 100,000 포교사단 100,000 경남 포교사단 100,000
 김환숙 100,000 경전반 100,000 정정남 100,000 강신철 100,000
 어린이나라 100,000 이태규 100,000 염불봉상회 100,000 최창을 100,000
 하형규 200,000 최수련 200,000 이현실 100,000 한솔건축 100,000
 미담원 100,000 내서 소라상회 200,000 불대17기 200,000 지마트 200,000
 푸른요양병원 300,000 관음회 100,000 황명순 500,000 법 료 100,000
 임철영 100,000 진해수협 300,000 심정환 200,000 석동 중앙문구 100,000
 조형식 100,000



태백동 급식소 후원금 현황입니다.

(5. 30~6. 20)

윤숙희 10,000	홍승운 40,000	(주)카텍 300,000	김태연 20,000
원광현의원 100,000	박미애 10,000	조성부 50,000	김지현 100,000
박덕선 100,000	진해 행복한 태권도	50,000	김인복 10,000
오미라 20,000	홍예현 50,000	김정수 10,000	법안성 30,000
노윤수 20,000	변동일 10,000	유봉악 10,000	오연옥 30,000
최진환 10,000	이헌실 30,000	찬불단 50,000	박진호 50,000
정진이 10,000	황두관 10,000	서경스님 5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8월 유치원 행사



1. 2018학년도 여름방학

- 기간 : 2018년 7월 26일(목)~8월 8일(수) (10일간)
- 2학기 개학일 : 2018년 8월 9일(목)



7,8월 어린이법회 활동



1. 어린이법회 방학

- 기간 : 2018년 7월 28일(토)~ 9월 1일(토)
- 2학기 법회 개강일 : 2018년 9월 8일(토)

2. 대광사 여름불교학교 템플스테이

- 일시 : 2018년 8월 11일~12일 (1박2일)
- 장소 : 대광사
- 대상 : 초등 1학년~6학년 선착순 50명
- 참가비 : 35,000원

백중(영가 합동천도재) 기도 안내

입재: 7월 8일(일) / 회향: 8월 25일(토)

초재~6재: 매주 토요일

- 입재~6재 : 오전 10시 설법전
- 회향 : 오전 9시 30분 설법전
- 영가1위당 : 2만원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055-545-9595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수 협 : 921-61-000421
농 협 : 821145-51-042833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예금주 - 대광사
예금주 - 대광사
예금주 - 대광사